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저희 인간이 초래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고,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눈앞의 편리와 편익만 보고 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파괴와 착취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기보다는 훼손하는 데 몰두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오니,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더불어 사는 영성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소서.”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여는 기도 중에서)



부활은 창조로부터 :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의미

지금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을 개인의 구원에 한정하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창조로부터 부활로 이어지는 하느님 사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가톨릭 생태 영성가로 유명한 토마스 베리 신부는 그리스도교가 생태적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원죄 교리에 치우친 구원관을 창조신앙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너무나 원죄에 집중하면서 하느님을 초월자로서만 인식하여, 창조 이야기의 풍요로움과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계시의 진리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고 인간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 종교가 되었다고 토마스 베리 신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가장 먼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의 완성 또한 함께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인간만이 아닌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 모두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은 단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닌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건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로마 8,21)라는 사도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당신 이외의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있어서 창조된 세상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있게 한 존재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우연성(contingency)'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우연성'이라는, 필연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은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나아가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창조는 하느님의 선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자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이 표현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느님의 책이 됩니다. 또한 각 피조물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고, 고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 존재를 고유하게 그 모습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된 존재들은 창조주의 원의에 따라 각자 구별되고 재생산될 수 없는 고유한 모습과 선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피조물들의 '개별성(haecceity)'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피조물의 개별성은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하기에 인간은 각 피조물을 관상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신앙과 관련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에 한정되는 구원의 의미를 '말씀을 통한 창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기간 '하느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Cur Deus Homo?*'라는 신학적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또 다른 영성의 전통인 프란치스칸 전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성자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으로 그분의 결정은 외부의 필연이 아닌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죄가 '성자의 육화'를 요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성자의 육화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위해 창조계획 속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성자는 모든 피조물 완성의 예형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창조계획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완벽한 창조의 계획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기에 성자께서 육화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자의 육화'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단지 원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닌 하느님 계획에 따른 모든 피조물의 완성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은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 인간만을 중심으로 여기는 세계관을 극복하고,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상호연결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확장된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신앙의 의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을 줄입시다!

*글자제: 빙하제,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50년입니다.

실천사항 6 다시쓰기_Reuse

'탄소발자국'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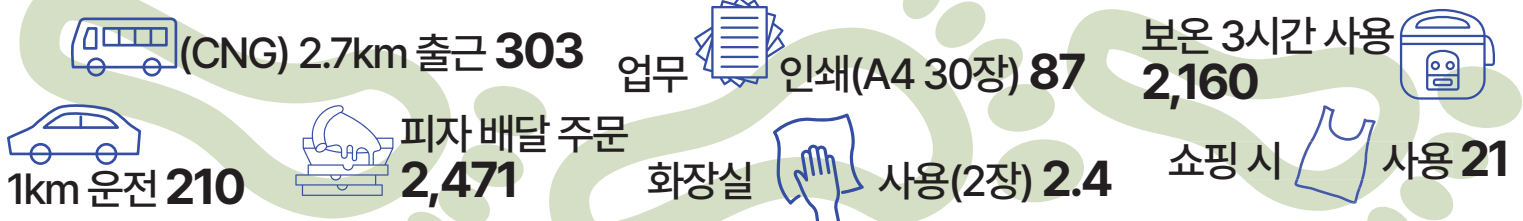
'탄소발자국'이란, (= 탄소 이력)

YTN사이언스
[사이언스포럼]
2050년 탈탄소 사회로의 길

우리가 일상 생활 중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한 것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TV를 보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탄소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아래는 여러 발자국들이다.

(단위: g)



함께! 해요,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모든 제품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옷 수선 등을 SNS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인증하고 공유하는 것.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함께 가요, 제로 웨이스트 샵

1. 제로웨이스트샵 비움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5 주공상가 2층

거제: 경남 거제시 옥포로23길 5 기부나눔마켓 리본 옆

ㄴ. 그리니지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43번길 10 2층

ㄷ. 진주제로웨이스트온: 경남 진주시 비봉로 6 2층

ㄹ. 천연제작소: 부산 동래구 석사로 26 1층(온라인샵)



함께하는, 마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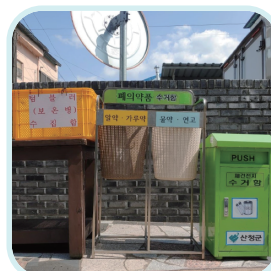
2023년 12월 기준 마산교구 내 생태 관련 분과를 운영하는 성당은 명서동·사천·산청·완월동성당으로, 위 성당들의 여러 활동 중 사천성당과 산청성당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천성당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사순실천표 준비
- 본당 주보에 격주로 "찬미하소서"를 인용한 글 게재
-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회개" 주제로 사순특강 2회 실시

산청성당

- 본당 주보에 "줍깅"을 소개 후, 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반중심으로 실천
- 본당에 폐의약품, 폐건전지, 텀블러 상시 수거
 - 폐의약품: 산청의료원 반납
 - 폐건전지: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시 새 건전지나 쓰레기봉투로 돌려줌(지자체마다 다름)
- 받은 물품을 본당 주보 환경 퀴즈를 통해서 본당 신자들에게 제공
- 텀 블 러: 필요한 가정에 다시 나눔함



산청 성당 활동 모습

